

## 초등학생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적용 실행연구 - 관계성 영역을 중심으로 -

이선영\*

###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중 관계성 영역을 중심으로 수업한 실행연구이다. 다문화감수성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 가치, 행동역량이며 이를 다양성, 관계성, 공정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관계성 영역에서의 수업을 살펴보고 공감 능력, 소통 능력, 협력 능력을 키우는 수업으로서의 학생의 변화와 수업의 프로그램 구성의 변화, 교사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후 자신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다문화 가정의 모습이나 다문화 사회를 인식할 수 있다는 대답 보다 관계성의 변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답변하였다. 프로그램은 두 차례의 수업 실시와 성찰, 두 번의 전문가 집단 토의를 거쳐 세 번째 수정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이는 2년에 걸친 2번의 실행이라는 수업의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결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로서 이 프로그램 수업의 의미는 실행, 수업성찰, 전문가 토의, 프로그램 수정이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능력이 필요했고 교사의 관계성 능력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다문화감수성, 관계성, 다문화교육, 교사 성찰, 실행연구

\* 본 논문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13년)의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초등 매뉴얼 개발 연구'에서 개발진으로 참여하여 수행한 내용 중 일부를 학생에게 실행한 연구임을 밝힙니다.

\*\*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박사과정, aim2@hanmail.net

## I. 들어가며

현재의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단일 민족국가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이 빠른 속도로, 그리고 대규모로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자와 공존하는 사회문화적 풍토를 아직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낯선 문화권의 낯선 민족을 이웃으로 맞이하게 됨으로써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과의 만남은 성인 세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됨에 따라 종전까지 모두 '똑같은' 한국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조금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수용성은 어른들보다 높은 편이어서(민무숙 외, 2012), 이들 '조금 다른' 친구들은 잘 적응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특히 문화적 편견이 쉽게 변화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아동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을 늘려가면서 타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정해숙 외, 2014:3). 갈등은 비단 개인적인 성향이나 민족적 정서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며 게다가 다문화 학생들의 증가에 따른 적응상의 어려움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위한 다수자 학생들의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2012년 한국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진단결과, 우리 청소년들은 이주민의 출신국가나 경제력 수준, 피부색별로 차등을 두는 이중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문화개방에 소극적이며, 이주민이 한국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동화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민무숙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계성 영역의 수업을 통하여 변화되어 가는 학생들의 모습, 실행 및 성찰의 과정에서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프로그램의 변화상, 그리고 교사로서의 수업의 의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교과에서 다양성이나 보편성 영역의 내용은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1) 관계성 영역의 공감, 협력, 소통의 내용은 포함되어 다루고 있지 않아서 연구자는 사회 교과의 내용으로서 학생들이 배우기 힘든 관계성 영역에 초점을 두어 연구해 보려 한다.

## II.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교육

Banks(2001)의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사회를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사회의 통합만을 목표로 하여 전적인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오은순(2007)은 다문화 가정 학

1)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사회책의 3단원 '다양한 삶의 모습들'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생활모습, 문화 등을 알아봄으로 다양성 영역을 다루고 있고, 학습활동으로 차별과 편견을 알아보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해보는 보편성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교육부, 2014. pp.110~164).

생의 적응,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 문화적 편견 해소, 평등사회 도모, 미래 사회를 위한 창조를 다문화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Bennett(2007)은 아동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에 정체성, 연대감, 사고력, 문제해결력, 학문적 기능발달과 희망적인 미래 창조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multicultural)라는 용어는 학문적 합의에 기초하기 보다는 2008년 3월에 제정되고 8월에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나타난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해석한 것이 학문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와 그 가족을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의미와 범위에 기초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는 결혼과 노동을 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게 된 문화적 소수자를 특징짓는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은 다문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문화 구성원은 인종이나 민족적으로 소수자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조대훈(2009)은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다문화교육의 개념은 단순히 인종적 편견의 극복을 뛰어넘어 그보다 포섭적인 의미로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인종문제 뿐만이 아니라 분단, 언어, 계급, 젠더, 장애, 이데올로기 등의 여러 하위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다문화교육의 정의는 다문화교육의 문제를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으면서,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의 문제 이면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아울러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종, 민족, 종교, 문화, 젠더, 계급 등의 문제를 다문화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능력과 태도를 뜻하는 '다문화감수성(multicultural sensitivity)'을 높이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2.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multicultural sensitivity)은 큰 의미로 문화간 감수성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는데, Bennett(2004)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 개인들이 문화 간 장벽에 대처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각기 다르며, 문화차이에 대한 감수성은 여섯 개의 발달단계로 구분 지었다. 첫 번째 3단계는 자민족 중심적 단계이고, 다음 3단계는 민족상대주의적 단계이다. 높은 단계로 문화간 감수성이 발달할수록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간 유능성이 증가한다. Peterson(2004)은 다문화 감수성을 문화에 대한 자각과 자기반영, 타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문화적으로 적절한 기술과 행동의 표현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았다. 김정덕·모경환(2007.)은 다문화 감수성을 '다른 문화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려는 태도, 신념, 행동으로 보고, 문화적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다문화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Bhawuk & Brislin(199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감수성을 인지, 정의, 행동적 이해로 분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hen과 Starosta(1997)는 다문화감수성을 타문화 집단과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인이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민감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1〉 Bhawuk & Brislin(1992)의 다문화적 감수성의 인지, 정의, 행동적 이해

단계	정의적 요소	인지적 요소	행동적 요소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무관심</li> <li>· 자신의 문화적 관점이 유일한 실체라고 믿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그와 관련한 정보나 지식이 없거나 부족함</li> <li>·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분화되지 못한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차이를 회피하고 부인</li> <li>· 문화적으로 유사한 사람들과만 어울림</li> </ul>
양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월한 문화형태라 믿음</li> <li>·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조직화하고 자신의 문화를 우월하게, 그들의 문화를 열등하다고 믿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li> <li>· 자율성과 개별화에 근거한 서구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친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문화의 결점을 강조하고 조롱함</li> <li>· 우월한 주류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 요구</li> </ul>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보편적이라 여김</li> <li>· 문화적 차이보다는 유사성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는 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문화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문화 차이에 대한 정보를 인지</li> <li>·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보편적 원칙, 신념, 제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류의 생물학적, 신체적 공통성과 유사성을 과도하게 교육실제에서 강조</li> <li>· 문화적 상황에 대한 통찰 없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발달과정 강조</li> </ul>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문화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동의하거나 호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휴머니티에 근거한 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면적 문화차이는 물론 심층적인 문화 차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 상대주의: 언어적 행동은 물론 비언어적 행동까지도 문화적 맥락에 따라 판단하고 적용</li> <li>· 가치 상대주의: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문화 집단에 따라 가치와 신념이 다르다는 점에 동의</li> </ul>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이입: 즉각적으로 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다른 문화적 패턴으로 변화시키는 태도</li> <li>·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진정한 감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 원리, 사회정의, 공정함과 동등함에 대한 이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와의 세계관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및 기술</li> <li>·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기술</li> <li>· 다원주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 다문화적인 관점을 내면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나 행동을 사용</li> </ul>

※ 배재정(2010, pp.158-159)

다문화감수성이 국가 또는 민족 간에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자민족 중심주의를 초월하여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인정하는 능력(Hammer & Bennett et al, 2003)이라는 개념은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민감성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정서적 태도로써 다문화적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김옥순, 2008)이라는 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이철현, 2013, p.133 재인용). 이규림(2011)은 다문화 감수성을 '나와 다른 문화 또는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접했을 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정서적 준비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향규 외(2013)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감수성(multicultural sensitivity)의 개념을 이전의 논의를 종합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 감수성 개념에서 '다문화'의 의미는 문화적 소수자 또는 소수자의 문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그 자체의 의미로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며 둘째, 다문화 감수성 개념에서 '감수성'의 의미는 하나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화(다양성),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관계(관계성), 세계 시민으로서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대하는 공평성(보편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경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많은 외국학자들의 정의와 국내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여기에서는 다문화 감수성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 가치, 행동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 Ⅲ.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1.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 개발 원리

##### 1) 교육내용

이향규 외(2013)가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 감수성의 영역은 다 다양성, 관계성, 공정성이라는 3개의 영역에서 각각 3개씩의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인정, 관용, 수용, 공감, 소통, 협력, 반차별, 반편견, 세계시민성 등 9개 역량을 기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제시하고 있다.

〈표 2〉 이향규 외(2013)의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의 핵심역량

영역	I. 다양성 영역	II. 관계성 영역	III. 보편성 영역
핵심역량	① 인정	④ 공감	⑦ 반차별
	② 관용	⑤ 소통	⑧ 반편견
	③ 수용	⑥ 협력	⑨ 세계시민성

다문화감수성의 역량을 제시한 이향규 외(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실제 수업을 진행한 부분은 관계성 영역이다.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은 사회 교과 내에서 타문화이해 측면이 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관계성 역량을 키워줄 교과내용이나 프로그램,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활동하고 들여다보려고 한다. 관계성 영역의 핵심역량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감:** 나와 다른 타인의 감정을 그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느끼는 감정

- **소통:** 자신과 타인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편견, 오해, 고정관념의 근원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태도 및 능력
- **협력:** 공감과 소통의 기반 위에서 다수자와 소수자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노력을 기울여 협동하는 태도 및 능력

## 2) 교육 목표

다문화 감수성 교육에서의 관계성 영역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나와 다른 것,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능력 신장
-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 정체성을 넘어서 타문화의 가치를 내면화하거나 진실한 관점을 취하려는 신념과 태도를 견지하는 능력 신장

## 2.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 적용의 연구 설계

### 1) 연구 대상 및 준거 기준

연구자는 지난 2년간 서울의 A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여왔다. 1차년도 3학년 학생들과 2차년도 3학년 학생들의 수는 2명 달랐지만 성별 비율에 있어서는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들 두 학습의 학습 습관이나 성향은 차이가 있었지만 다문화 감수성 관계성 영역의 질문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고 재수정하여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 교육 상황에서 같은 수업을 두 번 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같은 나이의 학생에게 2차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상호작용을 고찰하려 하였고,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 중 관계성 영역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전, 사후의 변화되는 모습을 실행연구로서 살펴보았다.

〈표 3〉 연구 대상의 구성

	남학생	여학생	외국인주민 학생 수	합계
1차년 연구 대상(3학년)	13명	12명	0명	25명
2차년 연구 대상(3학년)	12명	11명	0명	23명
비율 (%)	52	48	0	100

## 2) 연구방법 - 실행연구

실행연구(action research)는 교사가 주체가 되어 수업을 분석하고 수정하고 재계획 및 실행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교사 중심적인 연구 방법이다(Milles, 강성우 외 역, 2005). 현재의 실행연구는 객관성이거나 이론 정립에 대한 관심보다 실천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며 반성적 실천의 자기순환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실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연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용숙 외, 2013, p.19). 따라서 본 연구자의 연구도 수업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실행을 하였으므로 실행 연구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 3) 실행연구 기간 및 내용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년 간 실시한 수업을 바탕으로 기록하였다.

〈표 4〉 연구의 절차 및 연구 내용

연구 단계	일정	주요연구 내용
초점영역	2013. 6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대상 설정 연구 영역 선정
자료 수집 및 분석	2013. 6- 2014. 2	문헌고찰 및 자료 수집, 분석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계획 모의 수업 실행 및 반성
수업 계획	2014. 3	프로그램 수정 및 재계획
실행연구	2013. 11	사전 설문조사 실시
	2013. 11. 7 ~ 11.14	1차 실행연구 실행 및 반성
	2013. 12. 22	전문가 집단 간담회
	2014. 4-6	프로그램 내용 수정
	2014. 9 ~10	2차 실행연구 실행 및 반성
	2014. 12	전문가, 수업자 수업 분석
반성 및 분석	2014. 12 ~ 2015. 6	프로그램 내용 수정
반성 및 분석	2015-2016	수업 분석 및 해석
결과 정리	2015-2016	결과 정리 및 요약

## IV. 연구 결과

### 1. 실행연구 전 학생들의 상황

연구자가 실행연구를 실시한 학급에는 다문화 가정 친구가 한명도 없다. 그만큼 다문화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학생들의 감수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학생들의 상황이 전 부라고 할 수 없어 간단한 설문지<sup>2)</sup>로 학생들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6개의 문항 중 특히 ② 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 본다는 문항에 부정적 대답이 많았으며 ⑤ 나는 나와 다른 생각과 취미를 가진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는 문항에 대해 '왜 나와 다른 생각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즐겁지요?' 라는 질문을 하는 여학생이 있어, 이 문항에 대해 의아함을 드러냈다. 아직 학생들은 나와 다른 것,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고 타인의 감정을 느끼

---

2) 이향규 외(2013)가 고안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사전 다문화감수성을 측정해 보았다. 다문화감수성 진단도구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평가문항을 추출한 것으로,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연구자가 수업 후 검증하고 싶은 관계성 영역의 문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이 통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 (문항 2\*1)
- ② 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 본다. (문항 5)
- ③ 나는 음식을 선택할 때 나에게 익숙한 음식만 선택한다. (문항 8\*)
- ④ 나는 차별받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난다. (문항 11)
- ⑤ 나는 나와 다른 생각과 취미를 가진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문항 14)
- ⑥ 나는 나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싫다. (문항 17\*)

\*은 부정형 질문이므로 역점수로 변환해서 사용한다.

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문화적 정체성을 넘어서 타문화의 가치를 내면화하거나 진실된 관점을 취하려는 신념과 태도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 2. 관계성 영역 프로그램의 개발

다문화감수성의 세 영역 중 관계성 영역을 4차시 수업으로 개발하였으며 학생들 수준에 맞게 게임, 역할극,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흥미로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프로그램 개발 내용은 <표-5>와 같다.

### 3. 1차 수업 실행과 반성

#### 1) 새롭고 재미있지만 어려운 활동

수업을 시작하며 연구자는 감정카드 세트를 준비했다. 다양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보는 수업을 고안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임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첫 단계부터 학생들은 스스로 표현하기 힘들어하거나 알고 있는 것은 무조건 대답하는 형식이 드러났다.

연구자: 지금 선생님의 손에 감정을 나타내는 카드가 한 장 있어요. 선생님이 몸으로 표현해 볼 테니 어떤 감정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놀라다'를 행동으로 표현)

세호3): 무섭다, 당황하다, 기쁘다, 화나다..... 놀라다요.

연구자: 세호가 답을 맞혔으니 세호가 나와서 한 가지를 표현

3)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하여 모든 학생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5〉 관계성 영역 프로그램 개발 - 1차

단원	활동	활동내용 (1차 수업용)	준비물
[1차시] 우리함께 느껴요 (공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의 개념알기 (전 차시 확인)</li> <li>마임게임- 친구의 감정 알아보기</li> </ul>	감정카드 세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의 감정 표현하기</li> <li>친구의 감정과 나의 감정 공감하기</li> </ul>	감정카드 세트, 공감팻말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의 개념 정리하기</li> </ul>	
[2차시] 너의 마음을 알아요 (공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치넬로 이야기 듣기</li> </ul>	판치넬로 인형, 루시아인형, 엘리아저씨 인형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 가고 셋 남기 활동- 소수자의 감정 이해하기</li> </ul>	머리띠, 별모양 포스트잇, 하트모양 포스트잇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 공감하기</li> </ul>	
[3차시] 우리서로 마음을 열어요. (소통)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침묵게임- 침묵 속에서 퍼즐 맞추기 게임하기</li> </ul>	그림 퍼즐 (12조각 정도)- 6세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듣고 그림그리기- 가림판으로 가리고 짝과 함께 서로의 그림 그리고 설명하기</li> <li>소통의 방법 찾기- 새로 전학 온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방법 찾기</li> </ul>	가림판, 그림그리기 학습지  소통의 방법 찾기 학습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의 의미 정리하기</li> </ul>	
[4차시] 우리함께 노력해요. (협력)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의 의미 확인하기</li> <li>( ) 넣기- 다문화친구의 어려움 생각해보기</li> </ul>	영상자료 - 지식채널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흔들리는 버드나무</li> <li>서로의 협력을 위한 신문기사 만들기</li> </ul>	신문기사를 만들기 위한 도표자료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의 장점 알기</li> </ul>	

할까요?

세호: (앞으로 나와서 표현하지만 별 표정이나 행동변화가 없다.)

친구들: (대답하지 못하거나 아무거나 대답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두 번째 활동으로 감정카드를 쪽 펼쳐놓고 모둠내에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문장을 감정카드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공감이라고 적혀있는 팻말을 들어서 공감이라고 외치라고 했더니 공감이라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영희: 나는 엄마가 피곤한 날 학원은 꼭 가야 한다고 할 때 짜증나.

채현: (아주 큰 소리로) 공감! 나도 짜증나. 나는 동생이 나의 물건을 자꾸 가져가면 화가나.

수현, 정민: 공감! 나두 그래.

공감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학생들 간의 공감이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학원에 꼭 가야했다고 하거나, 동생이 내 물건을 가져가는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본인의 감정이 단순히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느끼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나의 감정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활동은 모든 활동 중 가장 재미있는 활동 중 하나로 뽑혔다. '이렇게 많은 감정이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공감이라고 외치는 활동으로 스트레스도

플러요'라고 하는 학생들의 소감을 보고 교육자로서 왜 아직 감정표현이라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는가 하는 반성도 되고 감정표현에 서툰 한국인들이라는 문제는 결국 교육해보지도 않고 하는 비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감정, 공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다.

'나는 소중한단다'라는 동화를 영상으로 만든 판치넬로 이야기는 9분이나 되어서 도입단계에 하기에 힘들었지만 아이들도 쨍빛별과 노란별을 붙이는 이유를 스스로 찾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영상은 수업의 도입활동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여 나중에 수정하게 된다.

'하나 가고 셋 남기'<sup>4)</sup> 활동에서는 우리 반 학생들의 경우 B형남자의 경우 왜 소수자인지 잘 알지 못하여 일반적인 남자들의 경우 가진 편견을 썼다. 각자 소수자의 역할을 한 친구들에게 소감을 물어보니 화가 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다고 대답했다.

신영: 너무 너무너무 화가 나요.

희재: '너도 한번 해봐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4) '하나 가고 셋 남기' 활동은 4명으로 구성된 한 모둠에서 수행한 학습 과제 내용을 한 학생이 다른 모둠으로 이동하여 수행하는 협동학습의 구조이다. 여기에서는 4명의 학생 중 1명이 소수자 역할을 담당하여 다른 모둠으로 이동하여 다른 모둠의 친구들이 '소수자 역할 친구에게 평소에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포스트 잇에 적어 붙여보고 소수자의 감정을 공감해보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공감카드로 감정표현	소수자의 감정 경험하기 (‘하나가고 셋 남기’ 활동)	

[그림 1] 수업 장면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 라냐에 대해 모둠에서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소통의 수업에서는 미리 장난으로 토론하지 않도록 교사가 충분히 지시하고 시작해야 하였다. 게다가 질문이 확산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개방형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아이들은 이를 장난으로 대답하여 수업 의도와 다르게 장난이 시작되었고 이에 잠시 시끌벅적하였다. 이 부분의 수업이 교사가 실제상황일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해야 함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교실에 외국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거나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있다면 이런 현실성 없는 상상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며, 아직 다문화적 사회로의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 수업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교사: 파키스탄에서 전학 온 친구 라냐예요, 이 친구의 나이는?

학생: 0살이에요. (학생들 웃음)

교사: 이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학생들 웃음)

협력을 가르치기 위해 친구들과 손을 잡고 원을 만든 후 친구들에게 의지해서 몸을 이동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의 활동은 학생들이 말로 했을 때는 활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교사의 시범이 반드시 필요했고 장난으로 손을 놓거나 했을 때 큰 사고로 이어

〈표 6〉 1차 프로그램 실행과 반성 후 수정된 프로그램

단원	활동	활동내용	1차 수업 후 수정된 프로그램
우리 함께 느껴요 (공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의 개념알기 (전 차시 확인)</li> <li>마음게임- 친구의 감정 알아보기</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나의 감정 표현하기</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나의 감정 표현하기</b></li> <li>- 40개 정도의 감정카드만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구의 감정과 나의 감정 공감하기</li> </ul>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의 개념 정리하기</li> </ul>	
너의 마음을 알아요 (공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판치넬로 이야기' 듣기</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하다는 것은?' 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학생에게 제시</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 가고 셋 남기 활동- 소수자(여자, 비만인 장애인, 흑인, B형 남자, 노인, 동남아 노동자)의 감정 이해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수자 역할에서 B형남자를 삭제하고 학급에 비만아동, 장애아 등이 있는 경우 그 역할은 하지 않도록 제시</li> </ul>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 공감하기</li> </ul>	
우리 서로 마음을 열어요. (소통)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침묵게임- 침묵 속에서 퍼즐 맞추기 게임하기</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듣고 그림그리기- 가림판으로 가리고 짝과 함께 서로의 그림 그리고 설명하기</li> <li><b>소통의 방법 찾기- 새로 전학 온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방법 찾기</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 전학 온 친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넣고 질문하도록 질문 문항을 세분화 함</li> </ul>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의 의미 정리하기</li> </ul>	
우리 함께 노력해요 (협력)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의 의미 확인하기</li> <li><b>( ) 넣기- 다문화친구의 어려움 생각해보기</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만들기' 영상으로 수정</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흔들리는 버드나무 활동</b></li> <li>서로의 협력을 위한 신문기사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하므로 '협력의 탑 쌓기 활동'으로 교체</li> </ul>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의 장점 알기</li> </ul>	

질 위험이 있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고안하기도 힘들지만 초등학교 수준에서 활동하기도 어려운 것이 많다는 결론에 도달해 수정을 하게 된다. 1차 프로그램 실행과 반성 후 수정된 프로그램은 <표6>과 같다.

#### 4. 2차 수업 실행과 그 결과

2차 수업은 다음해 같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차 수업과 다른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의 연령, 구성원의 성격이 유사하여 활동에 별 다른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 1) 학생들의 관계성 인식의 유의미한 변화

1차 프로그램 실행은 '이 활동이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인가?'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 이었다고 한다면 2차 수업은 학생들의 관계성 부분에 유의미한 활동인가에 대한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 되었다.

2차 수정된 프로그램이 적용되자 학생들의 활동이 더욱 안정되었

<표 7> 관계성의 변화 모습

질문: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철수	다문화 친구들이 전학 오면 놀리지 않을 것이다.
중기	우리 반에 외국인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잘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채현	친구들 모두에게 많이 친절해졌다.
서연	더 공감하게 되고 친구들과 협력하게 되었다.
수현	이제부터 다문화 가정을 존중해야겠다는 것
경희	다문화 아이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으며 활동 결과 관계성에 관한 질문에서도 학생들의 답변이 다양해 졌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후 자신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다문화 가정의 모습, 다문화 사회를 인식할 수 있다는 대답 보다 다문화 가정을 존중하거나 다문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관계성의 변화에 대해 답변한 친구가 많았다. 이는 이 프로그램의 의도대로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친구들에 대한 관계성에서 학생들이 긍정적 인식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한명도 없는 학급에서 프로그램 교육으로도 학생들이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결심하는 모습이 교사의 입장으로 참 고무적인 일이다.

## 2) 3차 프로그램으로 재수정

2차 수업은 1차 수업 후 수정된 프로그램을 실시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감, 협력의 수업에서 사용된 동영상이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웠고 부드럽고 매끄럽게 전개의 수업으로 넘어가기 어려웠다. 이는 2번째 전문가수업자의 협의과정에서도 한계로 드러났고 이를 위해 재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전문가A: 수업 장면을 보니 '특별하다는 것은?' 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제대로 의미를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수업자: 저도 인형을 가지고 수업을 하지만 아이들이 집중하며 재미있어 하는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잘 이해했는지 모르

겠습니다. 수업에서의 교사의 표현의 문제인지 내용의 문제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B: 설명이 없는 그림을 보고 어떤 감정인지 생각해보는 심리검사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림에서 추측할 수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재미있어 할 것 같은데요.

수업자: 네,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력의 '영화만들기' 영상도 아이들의 협력의 개념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책에 제시된 이야기를 보여주면 어떨까 합니다.

전문가A: 풀지 없는 운동회 말씀인가요? 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교육만화 동영상에 있어요. 그 만화를 보면서 협력이라는 개념을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면 좋겠네요.

이 협의를 통해 2차시 공감영역 수업에서 '특별하다는 것은?'이라는 창작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너무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사진 을 보여주고 감정을 읽어보기 활동으로 바꾸었고, 다문화 가정 친구의 감정 공감하기 활동도 모호하고 마무리 활동으로 앞의 활동과 겹치는 것이 많아 일상생활에서 공감 실천 카드 만들기(실천하고 체크 하는 형식)로 바꾸었다. 3차시 소통영역 수업에서도 새로 전학 온 다문화가정 친구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하기 위해 '전학 온 친구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소통의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심도 있게 전개하는 것으로 활동을 변경했다. 협력영역 수업에서도 도입 동영상을 다른 학교의 사례를 영상으로 만든 '풀지 없는 운동회'로 바꾸고 협력을 위한 신문기사 만들기는 시간 부족으로 삭제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수정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8〉 1차와 2차 프로그램 실행과 반성 후 수정된 프로그램

단원	활동	최초 고안된 활동 내용	1차 수업 후 수정된 프로그램	⇒	2차 수업 후 수정된 프로그램
우리 함께 느껴요 (공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의 개념알기(전자시 확인)</li> <li>마임게임- 친구의 감정 알아보기</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의 감정 표현하기</li> <li>친구의 감정과 나의 감정 공감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의 감정 표현하기 40개 정도의 감정카드만 사용</li> </ul>	⇒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의 개념 정리하기</li> </ul>			
	너의 마음을 알아요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치넬로 이야기 듣기</li> <li>하나 가고 셋 남기 활동- 소수자(여자, 비만인, 장애인, 흑인, B형 남자, 노인, 동남아 노동자)의 감정 이해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하다는 것은? 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학생에게 제시</li> <li>소수자 역할에서 B형남자를 삭제하고 학급에 비만아동, 장애아 등이 있는 경우 그 역할은 하지 않도록 제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사진 속의 감정 읽어보기 활동으로 바꿈</li> </ul>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정 친구의 감정 공감하기</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생활에서 공감 실천카드 만들기</li> </ul>
우리 서로 마음을 열어요. (소통)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침묵게임- 침묵 속에서 퍼즐 맞추기 게임하기</li> <li>듣고 그림그리기- 가림판으로 가리고 짝과 함께 서로의 그림 그리고 설명하기</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의 방법 찾기- 새로 전화 온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방법 찾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 전화 온 친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넣고 질문하도록 질문 문항을 세분화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화 온 친구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소통의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토의하기</li> </ul>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의 의미 정리하기</li> </ul>			
	우리 함께 노력해요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넣기- 다문화친구의 어려움 생각해보기</li> <li>흔들리는 벚드나무</li> <li>서로의 협력을 위한 신문기사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만들기' 영상으로 수정</li> <li>위험하므로 '협력의 탐 쟁기' 활동으로 교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인 제일 초등학교 '펼쳐 없는 운동회' 일화 소개</li> <li>협력을 위한 신문기사 만들기 활동 삭제(시간 부족)</li> </ul>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의 장점 알기</li> </ul>			

수정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어렵지 않은 내용과 적절한 시간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활동과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없는 활동은 삭제되었다. 위험하거나 다인수의 학급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활동들도 모듈별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수정되었다. 특이한 것은 1차 수업으로 활동이 수정이 된 경우에도 2차 수업을 해보니 시간이 부족하거나 남아서 다른 활동으로 수정이 된 경우가 있었다. 결국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활동, 예를 들면 2차시 수업의 정리 활동인 '다문화가정 친구의 감정공감하기'는 2차 수업에서 다른 활동들이 변화함에 따라 3번째 수정 프로그램에서는 같은 차시내의 다른 활동들의 영향을 받아 '일상생활에서 공감 실천카드 만들기' 활동으로 바뀌게 된다. 결국 세 번의 수정 과정에서 활동들은 서로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도 실행과 성찰을 통해 수업 프로그램이 다각도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3) 교사로서의 프로그램 적용의 의미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교사로서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초점을 둔 것이 사실이었다. 우리 반 아이들의 인식 변화 보다 이 프로그램을 여러 번 해보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수업을 분석하는 것,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 것, 그리고 논의를 다시 수업에 적용해 보는 일련의 과정이 교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교사로서의 감정 표현, 협력의 태도 등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다만 일련의 프로그램 적용이 수업을 하는 교사, 학생들 뿐 만 아니라 이를 비디오로 찍어 주는 스텝, 전문가 집단, 그리고 학교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적 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함에 있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소통해야 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수업의 연계였으며 학생들에게 높여주고 싶었던 관계성 능력을 교사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은 내용과 방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업에 대한 노력과 준비 과정이 모두 수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도 함께 성장하게 하는 모티브가 되는 것이다.

## V. 결 론

이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중 관계성 영역을 중심으로 수업한 사례를 분석, 제시하는 실험연구이다. 다문화감수성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 가치, 행동역량이며 이를 다양성, 관계성, 공정성으로 분류하여 각각 3개씩의 핵심역량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 중 관계성 영역에서의 수업을 살펴보고 공감 능력, 소통 능력, 협력 능력을 키우는 수업으로서의 학생의 변화와 수업의 프로그램 구성의 변화, 교사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후 자신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다문화 가정의

모습, 다문화 사회를 인식할 수 있다는 대답 보다 다문화 가정을 존중하거나 다문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관계성의 변화에 대해 답변한 친구가 많았다. 이는 이 프로그램의 의도대로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친구들에 대한 관계성에서 학생들이 긍정적 인식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은 2차례의 수업 실시와 성찰, 2번의 전문가 집단 토의를 거쳐 3번째 수정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마지막 고안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이해수준에 맞는가? 안전한 활동인가?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가?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되어 있다. 이는 2차 실행이라는 수업의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결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로서 이 프로그램 수업의 의미는 실행, 수업성찰, 전문가 토의, 프로그램 수정이라는 일련의 단계를 두 번 거침으로서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공감, 소통, 협력의 능력이 필요했고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그 능력이 스스로 증가했음을 깨닫게 해주는 모티브가 되었다. 이런 실행연구의 일련의 과정이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수정, 그리고 교사의 성장을 돕는 결정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4).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서울: 천재교육.  
김옥순, 전성민 (2009). 초등교사의 문화간 감수성 조사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6(1).

- 김정덕, 모경환(2011). 문화성향과 다문화 감수성 관계 연구. **교육문화연구** 17(3).
- 민무숙 외(2012).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12-51, 여성가족부.
- 박혜숙 외(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Pp303-325.
- 배재정(2010). 유아교사의 다문화적 감수성 발달 및 평가 방안 탐색: DMIS와 IDI의 적용 및 활용. **어린이미디어 연구**, 9(3).
- 안경식 외(2008).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학지사.
- 안상수 외(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12-02, 여성가족부.
- 양계민 외(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8-R07.
- 오경화(201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9).
- 오은순 외(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방안연구(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PRC2008-5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편)(2001). **더불어 사는 세상 배우기**.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편)(2003).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편)(2004). **우리는 지구촌시민**. 서울: 일조각
- 이선영(2013). **다문화시민 구성요소로서 공감의 확장성**. 글로벌교육연구.
- 이선영, 장해숙(2014).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초등 매뉴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이용숙 외(2013).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하는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이지영(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철현(2013). 다문화교육 강좌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다문화감수성 측정도

- 구 개발. **다문화교육연구**, 6(3), 131-156.
- 이향규 외(2013).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연구보고.
- 정해숙 외(2014).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도구 개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연구보고.
- 조대훈, 박민정(2009). 다문화 감수성의 증진을 위한 다문화 수업모형 개발, **교육연구 제 46집**,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Pp.26-65.
- Banks, J. A. & Banks, C. A. M.(1995).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Banks, J. A.(김용신 · 김형기역)(2007). **다문화 시민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Bennett, J. M. & Bennett, M. J.(2004).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 Bennett, M. J.(1986).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Cross-cultural orientation: New conceptualizations and application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New York (1986), pp. 27-70.
- Bennett, M. J.(1993).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Paige, R. M.(Eds),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2nd ed.)*,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Inc.
- Bhawuk & Brislin(1992). The measuremen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using the concep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4).
- Chen & Starosta(1997). *Foundation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tercultural Press. USA.
- Hammer, M R, Bennet et al.(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l Jour of Intercult Relations*, 27, 421-443.
- Milles, J.(2002). *Action research: A guide for the teacher researcher*. 강성우 외 역 (2005). **교사를 위한 실행연구**.
- Peterson(2004). *Cultural Intelligence: A Guide to Working with People from Other Cultures*. Intercultural Press. USA.

## Abstract

### Action Research to Develop Multicultural Sensitivit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Area -

Lee Sunyoung  
(Graduate School of SNU)

This study is an action research to develop multicultural sensitivit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area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ulticultural sensitivity means values, behaviors and competencies to bear relationship in harmony with others, to communicate in diverse cultural environment, and it can be classified into diversity, relationship and fairness. I gave lessons on the relationship area and tried to find changes of students' behavior, lesson programs and teacher's attitudes to improve empathy skills, communication skills and collaboration capabilities. Students told the changes of the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friends more than recognizing the shape of a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families. The third program was complet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4 lessons two times, teacher's reflection and expert group discussions. This can be called a complete result of lessons that executed one every two years. As a teacher, I had empathy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this program in cooperation with several people and program modifications and could require communication ability and partnerships with others.

*Key words : multicultural sensitivity, relationships, partnership, multicultural education, teacher's reflection, action research*

투고신청일: 2016.10.30

심사수정일: 2016.12.03.

게재확정일: 2016.12.26